



가금육의 수입 위생조건 개정

농림수산부는 지난 13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중인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수입가금육 중 육계육에 한하여 콩팥이 제거되지 않아도 되며 기수입된 육계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중 제11항의 개정은 가금육은 머리, 발, 모이주머니, 허파, 식도, 기도, 냉장 및 콩팥(육계는 제외) 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탈모는 외모 및 자모를 완전히 제거,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콩팥 조항에 육계제외 조항이 추가됐다.

저울관세로 추가 수입

정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운영하는 품목중 축산업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종계, 종돈, 종자용육수수, 종자용 수

수, 보조사료 등 5개 품목에 대해 추가수입을 허용키로 했다(표참조).

이로써 종계 53만9천수, 종돈 1천8백90두를 수입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표. 저울관세 적용물량 추가수입 내역

품명	단위	시장접근물량		'95추가 수입량	고율 관세(%)
		세율 (0%)	이행계획 (88~90)		
종계	천수	0	461	539	9.9
종돈	두	0	1,100	1,890	23.1
육수수 (종자용)	톤	0	247	217	361.3
수수 (종자용)	톤	3	13.7	6.3	857.3
보조사료 기타사료용 조제품	톤	5	2,502.8	7,497.2	55.6

진흥지역 생산자단체 유통시설 신고로 농지 전용가능

농림수산부는 지난 21일 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 밖에 유통 및 가공시설 설치시 7천 m²까지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기준을 경영개념기준으로 단순화 해 1천 m²이상 농지 경영 또는 경작자, 농림어업경영을 통한 100만원 이상 농림수산물 판매자 또는 1년중 90일이상 농림어업 종사자(어업은 60일)로 규정했다.

5일 이내 선통관 유통 허용예정

보건복지부는 과실류 등 일부 수입농산물의 선통관을 허용하고 통관기간도 대폭 줄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의 통상현안으로 통관기간을 단축키로 한 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물가조절용 식품 △어패류 등 4종류이며 이외의 식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상통관후 유통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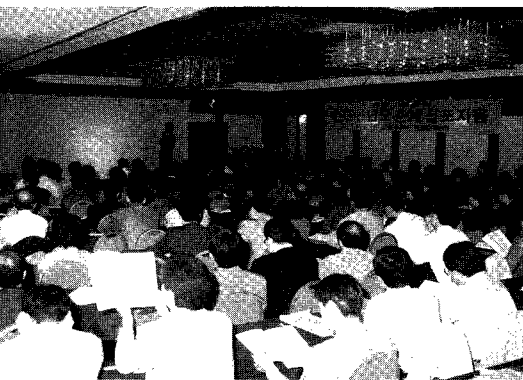
가변형시설도 적정시설로 인정

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축사면적과 다르거나 길이, 폭 등이 변경된 정화시설도 구조 및 규격이 표준시설과 적합하면 정정한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일부 행정기관 담당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표준설계도의 예시도와 다른 가변형 시설은 적정시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 가변형시설도 적정 정화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금학회

'95년도 춘계 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한성욱)는 지난 14, 15일 양일간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채란양계산업의 시설자동화와 환경제어”란 주제로 '95년도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채란계 생리와 한국 기후조건에 알맞는 환경조정의 설정”이란 주제로 한국기자재협회 박근식 회장이, 축산기술연구소 이덕수 연구관이 “한국의 산란계사 자동화를 위한 실태 분석”, “관행계사와 자동환경 조절 계사의 생산성 및 경영비교”란 주제로 쌍용농장 장대석 사장이, 수의과학연구소 김기석 과장이 “무창계사에서의 질병·위생대책”과 강원대학교 이규호 박사가 “무창계사에서의 환경온도와 산란계 사양”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양측기들은 심포지움을 통해 무창계사에서의 방역대책과 크로스식, 터널식, 크로스식과 터널식의 혼합형 등 생산성에 직결되는 환기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15일에는 청운농장, 쌍용농장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질병 방제기술 심포지움 개최

수의과학연구소, 축산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질병 방제기술 심포지움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가축질병의 문제를 해결, 국내축산물의 세계화에 부응키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닭 질병 분야는 23일에 열려 “종계장질병 청정화의 생산성 향상 방안”, “부화장 위생대책과 살



모델라 방제”, “육계의 생산성 저해요인과 방제기술”, “계사내의 환경위생관리와 생산성” 등 각각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외함께 19일에는 소질병 분야, 20일에는 돼지질병 분야로 나누어 각각 주제발표가 있었다.

(사)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사무실 이전 및 현판식 거행

(사)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는 지난 10일 사무실을 이전하고 엄홍우 회장을 비롯 업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7-7 대등빌딩 502호
- 전화 : 3452-7651
- 팩스 : 3452-7650

농진공, 창립 25주년 기념식 개최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 7일 공사창립 25주년을 맞아 농진공 대운동장에서 최인기 농림수

산부장관을 비롯 지역 유관기관장, 직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창사 25주년을 맞은 농진공은 이날 농어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21세기 선진농어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사발전에 공로가 큰 직원 표창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해 체육행사도 함께 개최하였다.

한국농어민신문 창사 5주년 기념대회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장 황민영)사가 주최한 창사 5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 농관련 업계대표, 농어민 후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대회 제1부에서는 “문민정부 농정 2년 평가와 방향”이란 심포지움이 있었으며, 제2부 기념식과 제3부 자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